

# 바짝 마른 산 비는 안 오고...전남 산불 '몸살'

### 올 32건...전년비 40% 증가 여수·보성서 인명피해 발생 건조한 날씨·적은 강수량 영향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여수시 돌산읍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나 7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시와 119는 헬기 2대와 소방차, 구급차, 방제차 등 차량 12대, 소방대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했다. 산불로 임야 3000㎡가 소실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진화로 자연 피해는 경미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밤 9시50분께에는 고흥군 금산면 적대봉(해발 592m)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역시 피해 규모는 0.2ha로 크지는 않았지만 다음날 오후 6시15분까지 불이 이어져 진화에는 20시간 이상이 걸렸다.

올해 건조한 날씨와 적은 강수량이 겹치면서 전남 산불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늘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산불 건수가 예년에 비해 73% 증가하고, 강릉·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면적도 3배나 늘었다. 산불 건수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건조주의보가 38일 발령됐으며, 강수량은 18mm로 예년(75mm)대비 24% 수준까지 낮아졌다. 12월에도 강원도·경상도에는 각각 건조경보,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15일 기준 전남에서 일어난 올해 산불 현황은 32건으로 지난해 23건에서 9건 늘었다. 피해 면적은 지난해 1.7ha에서 올해 4.29ha로 152% 늘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을철(11월1일~이달 15일)에 전국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산불(71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건이었던 산불이 5건(피해면적 0.83ha)으로 늘었다.

지난달 16일에는 화순군 동북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0.5ha를 태우고 4시간30여분만에 진화됐다. 원인은 산 아래부분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불이 산쪽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보성에서 출동한 산불감시용 민간 헬기 1대가 추락해 6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기동단속을 펼치기까지 했지만 여수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것이다.

올해 전국적으로는 산불이 663건 일어났고 1428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338건,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간 평균 385.8건보다 훨씬 많았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35%(236건))가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29%(191건)를 차지했다.

산림청은 산불위험경보 '주의' 해제 때까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동절기에도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국민들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난 12일 오후 울산시 북구 상안동의 한 야산에 불이 나 공무원 등이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년 끝자락...입석대의 일출  
올해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심재환씨의 '입석대의 일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해 수상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제16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집'을 판매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 국유림 불법 경작 감시·처벌 강화

2018년부터는 국유림 내 불법 경작 등 무단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제재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곳과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 월출산 일부 구간 폐쇄

### 지리산 오늘 화재훈련

겨울 산행철을 맞아 지역 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객 안전관리에 나섰다.

월출산사무소는 "내년 2월28일 까지 상습결빙으로 추락사고 등 탐방객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름다리~경포대능선 삼거리 구간을 폐쇄(출입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천황사~구름다리, 바람폭포삼거리~구름다리 구간은 출입이 가능하며 날씨와 위험요인 정비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벽소령·세석·장터목·로타리·치발목 등 5개 대피소에서 화재발생 대비 대피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난로 등에 의해 대피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탐방객 대피와 화재진압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탐방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안전산행·심폐소생술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수도용 자재 위생관리 강화 '수도법' 개정

환경부가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 사업을 할 때 타인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도관·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동안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1달 가량 소모되는 인증취소절차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합격 판정 즉시 판매

금지 및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게도 벌칙(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사업자가 수도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2018년 6월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리치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점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